

제주도 방언에 대한 방언 태도 추이 연구* **

김순자

Abstract

Kim, Soon-ja. 2019. 08. A Study on Changes in Attitude to Jeju Dialect. *Korean Linguistics* 84. 1~34.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tudy changes in attitude to Jeju dialect. 3 different research papers written by Jeong Min, Lee in 1981, Yeong bong, Kang in 2013 and this writer in 2017 were compared. As a result, respondents show positive attitudes to Jeju dialect. Women tend to have more positive attitudes than men, whereas men have more positive attitude to Korean standard language. This results break down social conventions that women prefer standard language. This change is also related to the changes of society. Status of Women have been raised in social activities and education, so social environment could affect the changes in attitudes to language. According to Lee's research, people showed negative feelings to dialect. This is the result of policy that the government preferred Korean standard language. However, attitudes to dialect changed and people showed significantly positive feelings to dialect in 2017. This change is because of social factors like maintenance policies of Jeju dialect and education.

주제어: 방언태도/언어태도(attitudes to dialect/attitudes to language), 사회언어학(Sociolinguistics), 사회적 변인(social variables), 성별(gender), 세대를 (generation), 제주도 방언(Jeju dialect)

1. 서론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다. 따라서 제주도 방언을 언중들이 속한 사회와 관련시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표준어 정책을 강조하던 시기의 제주도 방언 태도와 2010년 12월 8일 유네스코에서 제주도 방언을 ‘사라지는 언어’ 5단계¹⁾ 중 4단계인 ‘아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5A07921314).

** 부족한 논문을 꼼꼼하게 읽어준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언어(critically endangered language)’로 분류한 이후, 제주도 방언 보전 정책을 펴는 현 시점에서의 제주도 방언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 제주도 방언 보전의 제도적 뒷받침은 곧 제주도 방언에 대한 도민 사회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물론 방언 태도를 변화시키는 요인도 되고 있다. 따라서 방언 태도와 변인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언어 태도’란 화자의 발화에 대해서 청자가 갖게 되는 느낌이나 평가 등의 반응을 가리키는 말이다. ‘언어 태도’ 대신에 ‘언어 의식’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방언을 대상으로 하면 ‘방언 태도’라 할 수 있다.

박경래(2002)에 따르면, ‘언어 의식’은 “언어에 대하여 사회적·역사적으로 형성된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감정이나 견해를 나타내는 내적 사고 작용”을 말하고, ‘언어 태도’는 “언어에 대하여 사회적·역사적으로 형성된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감정이나 견해를 나타내는 내적 사고 작용의 구체적인 반응”으로 구분하고 있다.(2002:61-62) 그러나 이 둘을 적절하게 구분해 사용하기도 한다. 사고 작용의 반응 결과는 ‘믿음직하다, 듣기 좋다/싫다, 씩씩하다, 점잖다, 배움직하다, 촌스럽다, 무뚝뚝하다, 간사하다’는 평가를 하게 된다. 물론 이런 평가는 개인이나 집단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다.

그동안 제주도 방언 연구는 전통방언학의 입장에서 주로 연구되어 왔을 뿐 사회언어학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에 비하여 부각되지 못했다. 이러한 연구 영역의 편중은 지역적 관심에서 사회적 변인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이 글은 제주도 방언에 대한 방언 태도²⁾ 추이와 표준어와

-
- 1) 유네스코는 ‘사라지는 언어’를 1단계 ‘취약한 언어(Vulnerable language)’, 2단계 ‘분명히 위기에 처한 언어(definitely endangered language)’, 3단계 ‘심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severely endangered language)’, 4단계 ‘아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critically endangered language)’, 5단계 ‘소멸한 언어’(extinct language) 등 다섯 단계로 나눈다.
 - 2) ‘방언 태도’는 ‘방언에 대한 내적 사고 작용으로 형성된 인자에 따른 구체적인 반응 및 행동’(김덕호, 2014:5)이다. 김덕호(2014:307)에서 ‘언어 인식’과 ‘언어 태도’에 대하여

방언에 대한 인식을 사회언어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이정민(1981)과 강영봉(2013)의 조사 자료와 본 연구자의 2017년의 조사 자료를 비교하여 제주도민들의 방언 태도의 추이와 변인을 살피려고 한다.

1981년의 조사는 표준어 정책을 강화하여 방언 사용을 억제하던 시기이고, 2013년은 제주도 방언이 유네스코의 ‘사라지는 언어’로 분류한 후에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제주도 방언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개시한 시기이고, 2017년은 제주도 방언 보전 정책이 보다 활발한 시기다.

이런 사회적 요소가 방언 태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방언 태도의 추이, 그리고 표준어와 방언의 인식 태도를 살피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2. 선행 연구와 연구 방법

2.1. 선행 연구

그동안 국내의 사회언어학적 연구는 사회언어학 전반에 관한 논의, 언어 태도와 사용의 문제, 사회 요인에 의한 변이, 문화 요소, 특수어휘에 대한 연구가 대중을 이루어 왔다.

그 가운데 언어 태도와 언어 사용에 대해서는 이정민(1981), 조준학 등(1981), 박경래(2002), 강정희(2004), 강범모(2004, 2005), 국립국어원(2005, 2010), 강현석(2010), 오성애(2010, 2011), 김덕호(2014) 등을 들 수 있다.

이정민(1981)에서는 언어 태도를 ‘믿음직스럽다, 듣기 좋다, 씩씩하다, 점잖다, 상냥하다, 배움직하다’ 등 긍정적인 태도와 ‘부럽다, 촌스럽다, 무뚝뚝하다, 간사하다, 듣기 싫다’ 등 부정적인 태도의 요소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니 참고할 만하다. 이 글에서는 김덕호의 용어를 차용하였다.

제시하였다. 강범모(2005)는 이정민(1981)과 비교하면서도 그 요소를 ‘듣기 좋다, 정겹다, 상냥하다, 귀엽다, 점잖다, 믿음직하다, 씩씩하다’와 ‘무뚝뚝하다, 차갑다, 답답하다, 무미건조하다, 촌스럽다, 간사하다, 듣기 싫다’를 제시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범모(2004, 2005)는 1980년대와 2000년의 ‘한국인의 방언에 대한 태도 추이: 예비적 조사 결과’를 통해 방언에 대한 태도 추이를 살피면서 제주도 방언에 대한 태도 연구는 제외하였다. 평가 요소도 방언에 대한 변화의 양상을 살피는 데 목적이 있음에도 이정민의 평가 요소 가운데 ‘부럽다, 배움직하다’를 빼는 대신 ‘정겹다, 귀엽다, 차갑다, 답답하다, 무미건조하다’를 추가하였다.

국립국어원(2005, 2010)은 국민 4천 명을 대상으로 하여 언어 의식을 조사하였고, 김덕호(2014)에서는 1981년, 2010년, 2014년의 언어 태도의 변화 추이를 다루었다. 강정희(2004)는 제일 한국인의 한국어에 대한 언어 태도를, 박경래(2002)는 중국 연변 조선족의 언어 태도와 사용을, 강현석(2010)은 충남 지역 화자들의 방언 구획, 방언 태도 및 인지에 대해서 연구하였고, 오성애(2010, 2012)는 중국 청도 조선족의 언어 태도와 사용을 다루고 있다.

제주도 방언의 언어 태도와 언어 사용 양상에 대한 연구는 이정민(1981), 강영봉(2013), 문순덕 등(2015)이 있다.

이정민(1981)은 전국 784명의 조사자 가운데 제주도 대학생 40명(남녀 각 20명)을 대상으로 하여 방언들의 인상을 묘사할 수 있는 형용사 ‘믿음직스럽다, 듣기 좋다, 씩씩하다, 점잖다, 상냥하다, 배움직하다, 부럽다, 촌스럽다, 무뚝뚝하다, 간사하다, 듣기 싫다’ 등 11개의 평가 요소를 바탕으로 방언에 대한 남녀 태도를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남자의 경우 ‘듣기 좋다’와 ‘무뚝뚝하다’가 같은 비율로 가장 높고, 기타 ‘믿음직스럽다’, ‘씩씩하다’, ‘배움직하다’의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과 ‘촌스럽다’의 부정적인 반응이 약간 나왔다. 여자의 경우에는 ‘무뚝뚝하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가장 높고, ‘듣기 좋다’,

‘믿음직스럽다’, ‘씩씩하다’, ‘점잖다’ 하는 긍정적인 반응이 미약한 반면, ‘듣기 싫다’는 반응(15%)”(1981:571)도 보이고 있다.

이정민(1981)의 연구는 논문의 참고 사항에서 밝혔듯이, “1980년도 문교부 정책 연구 과제로서 서울대 어학 연구소를 통해 공동 연구한 조준학, 박남식, 장석진, 이정민의 ‘한국인의 언어 의식: 언어 접촉과 관련된 사회언어학적 연구’(1981년 7월말 완성)에서 집필 부분을 기초로 하여, 당시 미처 처리하지 못했던 자료를 분석하여 대폭 확대)한 것이다”. ‘문교부 정책 연구 과제’로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언어 태도가 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1980년대는 표준어 정책을 강화하던 시기여서 표준어보다 방언이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 연구 결과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언어 태도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강영봉(2013)은 제주사회 통합 과정을 논의하면서 이정민(1981)과 같은 요소와 42명(남 21명, 여 21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30여 년 동안의 언어 태도의 변화 추이를 살폈다. 그 결과는 “1980년대보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는 높아진 반면 부정적인 태도는 조금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여학생들이 긍정적인 태도에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이런 태도 변화는 “유네스코가 2010년 제주도 방언을 소멸위기의 언어로 분류한 결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제주도 방언 보전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를 보전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제주도 방언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2013:47)

강영봉(2013)은 제주 사회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주 사람들이 써왔던 제주도 방언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는 당위성이 언어 태도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문순덕 등(2015)은 정책 결정을 위하여 이루어진 조사다. 여기에서

3) 이 연구물은 사회언어학적으로 한국인의 언어 의식을 처음으로 다룬 논문이다. 이 연구물을 계기로 하여 한국어와 방언의 언어 태도를 규명하는 논문이 작성되었다.

는 여러 분야가 조사되었는데, ‘활력 있는/침체된, 편리한/불편한, 남성적/여성적, 밝은/어두운, 조용한/시끄러운, 따뜻한/차가운, 친근한/어색한, 앞선/뒤쳐진, 고급스러운/평범한, 세련된/투박한’ 등을 언어 태도 결정의 요소로 삼고 있다.

2.2. 연구 방법

제주도 방언의 방언 태도 추이를 살피기 위하여 이정민(1981)과 강영봉(2013), 그리고 연구자가 2017년에 조사한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이정민과 강영봉의 설문 내용을 토대로 하여 설문지를 작성한 후에 설문지를 가지고 조사, 분석 과정을 거쳤다.

2.2.1. 설문지

설문지는 일반 사항 7문항, 언어 태도 17문항 등 24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일반 사항은 성별, 나이, 출신지, 부모 고향, 직업, 교육 정도, 가족 구성으로 구성되었다.

언어 태도 관련 문항은 이정민의 평가 요소 중 ‘믿음직하다, 듣기 좋다, 씩씩하다, 점잖다, 배움직하다, 부럽다, 촌스럽다, 무뚝뚝하다, 간사하다, 듣기 싫다’ 등 10개 요소⁴⁾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그저 그렇다, 잘 모르겠다, 그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5개 항목 중에 고르도록 하였다.

위의 10개의 느낌을 묻는 문항 외에 제주도 방언의 느낌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관식 문항(복수 응답 가능)을 추가하였고, 제주도 방언과 표준어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기 위한 6개 문항을 포함하여 모두 17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4) 이정민의 평가 요소를 원용하면서 ‘상냥하다’를 제외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연구자가 설문 과정에서 ‘상냥하다’는 항목을 미처 넣지 못해 생긴 변수로, 이정민에서는 응답자가 없었다.

<설문지 예시>

2-1. 제주도 방언을 들으면 ‘믿음직하다’는 느낌이 듭니까?

- ① 매우 믿음직하다는 느낌이 든다.()
- ② 그저 믿음직하다는 느낌이 든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그저 믿음직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 ⑤ 전혀 믿음직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2-2. 제주도 방언을 들으면 ‘듣기 좋다’는 느낌이 듭니까?

- ① 매우 듣기 좋다는 느낌이 든다.()
- ② 그저 듣기 좋다는 느낌이 든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그저 듣기 좋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 ⑤ 전혀 듣기 좋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2-11. 위의 10가지 이외의 느낌이 든다면 다음 괄호 안에 직접 써 주시고, 그 이유도 간단하게 적어 주십시오. 복수 응답도 가능합니다.
()

2-12. 제주도 방언과 표준어를 비교하면 어느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표준어가 매우 좋다.()
- ② 표준어가 그저 그렇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제주도 방언이 매우 좋다.()
- ⑤ 제주도 방언이 그저 그렇다.()

2-14. 자녀들이 제주도 방언 배우기를 희망합니까?

- ① 배우기를 아주 희망한다.()
- ② 배우기를 희망한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배우기를 희망하지 않는다.()
- ⑤ 배우기를 매우 희망하지 않는다.()

2-17. 제주사회에서 생활할 때 제주도 방언 사용이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 ② 그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그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⑤ 매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방언과 표준어의 태도를 비교하기 위한 문항은 ‘제주도 방언과 표준어를 비교하면 어떠한가, 좋다면 왜 좋은가, 자녀들이 제주도 방언을 배우기를 희망하는가, 희망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방법을 통해 배우기를 원하는가, 제주 사회에서 생활할 때 방언 사용이 영향을 끼치는가’ 등이다. 이런 질문 문항을 추가한 것은 언어 선택의 문제, 제주도 방언의 가치와 보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2.2.2. 설문 조사와 분석

조사는 2017년 7월부터 8월까지 한 달 동안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은 세대별로 남녀 각 60명씩 240명(남 121명, 여 119명)인데, 회수된 설문지는 20·30대 59명(남 30명, 여 29명), 40·50대 61명(남 31명, 여 30명), 60·70대 60명(남 30명, 여 30명), 80대 이상 60명(남 30명, 여 30명) 등이다. 응답자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대상	비율	합계	구분	대상	비율	합계
성별	남자	121	50.4	240	직업	농수축산업	57	23.8
	여자	119	49.6			자영업	24	10.0
연령	20~30대	59	24.6	서비스업		27	11.3	
	40~50대	61	25.4	공무원		32	13.3	
	60~70대	60	25.8	학생		11	4.6	
	80대	60	25.0	무직		51	21.3	
	이상			기타		38	15.8	
출신지	제주도	214	89.2	교육수준		무학	19	7.9
	서울경기	6	2.5			초졸	29	12.1
	충청	11	4.6			중졸	13	5.4
	경상	8	3.3		고졸	50	20.8	
	이북	1	0.4		대졸	92	38.3	
					대학원졸	32	13.3	
			기타		5	2.1		
부모 고향	제주도	207	86.3	가족구성	부부	62	25.8	
	서울경기	2	0.8		부부, 자녀	113	47.1	
	충청	4	1.7		부모, 부부, 자녀	19	7.9	
	경상	11	4.6		혼자		18.8	
	전라	14	5.8					
	이북	2	0.8					

이정민(1981)과 강영봉(2013)의 조사 대상은 대학생으로 한정하여 각각 40명(남녀 20명)과 42명(남녀 21명)이다. 강영봉(2013)이 이정민(1981)과 비슷하게 조사 대상을 잡은 것은 30년이 지난 후의 제주도 방언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 변화의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위의 두 조사와 달리 이 조사에서 대상 숫자를 늘리고 연령대를 다양화한 것은 계층별 변인도 알아보기 위함이다. 성별 또는 세대별로 조사 대상자를 비슷하게 한 것은 성별과 세대에 따른 방언 태도의 변인을 파악하고, 출신지를 제주도와 타도로 구분한 것은 자기 방언과 타 방언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조처다.⁵⁾

5) 보통 방언에 대한 태도는, 자기 방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반해서 다른 방언에 대해서는 자기 방언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사는 질문지를 이용하여 면 대 면으로 실시하였다. 이 면 대 면 조사는 가장 확실한 조사 방법으로 조사할 때 부연 설명이 가능하고, 애매함이 제거되어 질 좋은 자료를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사는 설문 대상자가 많아 본 연구자 외에 보조연구자도 활용하였다. 보조 연구자는 방언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으로, 설문 조사 일부를 담당하였다.

조사 설문지는 2017년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통계 전문 ‘인리서치’에 의뢰하여 분석하였다. 설문 분석은 사회 조사 방법과 통계 방법을 활용하였다. 통계는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3. 제주도민들의 방언 태도와 추이 변화

3.1. 방언 태도

제주도민들의 제주도 방언에 대한 태도는 이정민(1981)에서 제시했던 형용사 11가지 중 ‘믿음직스럽다, 듣기 좋다, 씹씹하다, 점잖다, 배움직하다, 부럽다, 촌스럽다, 무뚝뚝하다, 간사하다, 듣기 싫다’ 등 10개를 대상으로 살폈다.⁶⁾

이들 10개의 인상에 대한 방언 태도를 ‘긍정’, ‘보통’, ‘부정’ 세 가지로 분류해 살펴보면, 긍정적인 반응인 ‘듣기 좋다’가 전체 8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로 ‘씹씹하다’ 81.7%, ‘배움직하다’ 71.9%, ‘믿음직하다’ 71.1%, ‘점잖다’ 51.9%, ‘부럽다’ 46.4% 순으로 응답하였다.

부정적인 요소 가운데는 ‘무뚝뚝하다’는 반응이 5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촌스럽다’ 26.0%, ‘듣기 싫다’ 8.1%, ‘간사하다’ 6.8%

6) 이정민 등에서는 복수 응답을 하도록 하였지만, 2017년 조사에서는 한 항목에만 응답하도록 하였다.

순으로 응답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표 2> 제주도 방언에 대한 태도 (단위: %)

항목	긍정	보통	부정
믿음직하다	71.1	19.2	9.6
듣기 좋다	82.8	9.6	7.5
씩씩하다	81.7	11.3	7.1
점잖다	51.9	21.8	26.4
배움직하다	71.9	11.9	16.2
부럽다	46.4	22.1	31.5
촌스럽다	26.0	14.0	60.0
무뚝뚝하다	51.9	7.2	40.9
간사하다	6.8	9.8	83.4
듣기 싫다	8.1	5.1	86.8

3.1.1. 성별

방언에 대한 태도는 남자보다 여자가 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요소는 ‘듣기 좋다’(81.0%)이고, 그다음이 ‘씩씩하다’(77.7%), ‘믿음직하다’(70.0%), ‘배움직하다’(69.8%), ‘점잖다’(50.0%) 순이었다. 여자의 경우는 ‘씩씩하다’가 8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그 다음은 ‘듣기 좋다’(84.7%), ‘배움직하다’(73.9%), ‘믿음직하다’(72.3%), ‘점잖다’(53.8%)의 비율로 응답하여, 남자보다 여자가 제주도 방언에 좀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표 3> 남녀별 방언 태도 (단위: %)

항목	남자			여자		
	긍정	보통	부정	긍정	보통	부정
믿음직하다	70.0	20.8	9.2	72.3	17.6	10.1
듣기 좋다	81.0	10.7	8.3	84.7	8.5	6.8
씩씩하다	77.7	14.9	7.4	85.7	7.6	6.7
점잖다	50.0	25.8	24.2	53.8	17.6	28.6
배움직하다	69.8	14.7	15.5	73.9	9.2	16.8
부럽다	47.9	23.9	28.2	44.9	20.3	34.7

존스럽다	25.0	15.5	59.5	26.9	12.6	60.5
무뚝뚝하다	44.8	9.5	45.7	58.8	5.0	36.1
간사하다	5.2	14.7	80.2	8.4	5.0	86.6
듣기 싫다	8.7	7.0	84.3	7.6	3.4	89.1

부정적인 요소의 경우는, 여자가 남자보다 좀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존스럽다’는 남자 25.0% · 여자 26.9%, ‘무뚝뚝하다’는 남자 44.8% · 여자 58.8%, ‘간사하다’는 남자 5.2% · 여자 8.4%, ‘듣기 싫다’는 남자 8.7% · 여자 7.6%로 나타났다. ‘존스럽다 · 무뚝뚝하다 · 간사하다’는 남자가 여자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듣기 싫다’는 남자가 여자보다 다소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3.1.2. 세대별

‘세대별’은 20-30대, 40-50대, 60-70대, 80대 이상 등 4세대로 나눠 방언 태도를 조사하였는데 세대가 높을수록 좀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이한 점은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40-50대가 보수층인 60-70대보다 방언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긍정적인 요소인 ‘믿음직하다’는 40-50대 81.4%, 60-70대 75.4%, ‘듣기 좋다’는 40-50대 91.7%, 60-70대 81.7%, ‘씩씩하다’는 40-50대 78.3%, 60-70대 82.0%, ‘점잖다’는 40-50대 71.2%, 60-70대 47.5%, ‘배움직하다’는 40-50대 74.5%, 60-70대 72.1%로 ‘씩씩하다’를 제외한 긍정적인 요소에서 40-50대가 좀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긍정적인 요소인 ‘믿음직하다’는 20-30대가 40.7%인데 반해 40-50대는 81.4%, 60-70대 75.4%, 80대 이상 86.7%로 세대가 높을수록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부정적인 요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요소는 ‘무뚝뚝하다’이다. ‘무뚝뚝하다’는 20-30대 57.6%, 40-50대 28.6%, 60-70대 63.3%, 80대 이상 56.7%로 나타났는데, 40-50대를 제외하고 10명 중 6~7명이 제주도 방언이 ‘무뚝뚝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더욱이 이 ‘무뚝뚝하다’는 태도

는 <표 4>와 <표 7>에서 보듯이 시간이 흘러도 바뀌지 않고 있다.

‘촌스럽다’는 반응은 가장 낮은 세대인 20-30대와 가장 연령이 높은 80대 이상에서 11.9%와 18.3%, 40-50대와 60-70대가 39.3%·35.0%로 중간 세대에서 좀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즉 30대 이하와 80대 이상에서는 10명 중 2명, 40대에서 70대까지는 10명 중 4명이 ‘촌스럽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세대별 방언 태도 결과는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 세대에 따른 방언 태도 (단위: %)

항목	20-30대		40-50대		60-70대		80대 이상	
	긍정	부정	긍정	부정	긍정	부정	긍정	부정
믿음직하다	40.7	20.3	81.4	3.4	75.4	11.5	86.7	3.3
듣기 좋다	62.7	11.9	91.7	1.7	81.7	11.7	95.0	5.0
씩씩하다	78.0	6.8	78.3	8.3	82.0	9.8	88.3	3.3
점잖다	20.3	50.8	71.2	11.9	47.5	29.5	68.3	13.3
배움직하다	61.0	15.3	74.5	18.2	72.1	16.4	80.0	15.0
부럽다	18.6	44.1	60.0	25.5	50.8	32.8	56.7	23.3
촌스럽다	11.9	62.7	39.3	42.9	35.0	60.0	18.3	73.3
무뚝뚝하다	57.6	37.3	28.6	58.9	63.3	31.7	56.7	36.7
간사하다	1.7	84.7	12.5	83.9	3.3	85.0	10.0	80.0
듣기 싫다	8.5	84.7	7.1	89.3	6.7	90.0	10.2	83.1

3.1.3. 출신지별

출신지에 따라서도 제주도 방언에 대한 태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사람들은 대체로 <표 5>에서와 같이 자기 출신 지역 방언에 대해서 타 지역 사람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긍정적인 요인인 ‘믿음직하다’는 73.7%, ‘듣기 좋다’ 85.9%, ‘씩씩하다’ 83.2%, ‘배움직하다’ 70.8%의 반응을 보였고, ‘점잖다’와 ‘부럽다’는 각각 52.6%·46.4%씩의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⁷⁾

제주도 외 출신의 경우는 ‘믿음직하다’ 50.0%, ‘듣기 좋다’ 57.7%,

7) 1981년과의 태도 비교는 ‘3.1.4. 방언 태도 추이’에서 자세히 다룬다.

‘씩씩하다’ 69.2%, ‘점잖다’ 46.2%, ‘배움직하다’ 80.8%, ‘부럽다’ 46.2%로 나타났다.

<표 5> 출신지에 따른 제주도 방언의 태도 (단위: %)

항목	제주도 출신			도외 출신		
	긍정	보통	부정	긍정	보통	부정
믿음직하다	73.7	18.8	7.5	50.0	23.1	26.9
듣기 좋다	85.9	7.5	6.6	57.7	26.9	15.4
씩씩하다	83.2	9.8	7.0	69.2	23.1	7.7
점잖다	52.6	21.6	25.8	46.2	23.1	30.8
배움직하다	70.8	12.9	16.3	80.8	3.8	15.4
부럽다	46.4	21.5	32.1	46.2	26.9	26.9
존스럽다	26.8	13.4	59.8	19.2	19.2	61.5
무뚝뚝하다	52.2	7.7	40.2	50.0	3.8	46.2
간사하다	6.7	9.6	83.7	7.7	11.5	80.8
듣기 싫다	8.7	3.8	87.5	3.8	15.4	80.8

특이한 점은 제주에 거주하는 타도 출신들이 제주도 출신보다 10% 이상 제주도 방언을 더 ‘배움직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2010년 이후에 제주로 이주한 제주도 외 출신들이 제주에 살면서 겪는 방언의 벽을 해소하려는 욕구와 함께 타 지역과 유다른 제주도 방언의 독특함에 매력을 느껴서 ‘배움직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⁸⁾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 제주로 이주한 사람들은 제주도 방언의 특이성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제주에서 가게 등을 열면서 제주도 방언을 상품명이나 상호로 활용하는 경우가 적잖이 있다.⁹⁾

8)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제주도의 주민등록인구 추이를 보면, 2014년 621,550명(한국인 60,7346명, 외국인 14,204명), 2015년 641,355명(한국인 624,395명, 외국인 16,960명), 2016년 661,190명(한국인 641,597명, 외국인 19,593명), 2017년 678,772명(657,083명, 외국인 21,689명), 2017년 678,772명(한국인 657,083명, 외국인 21,689명), 2018년 692,032명, 외국인 24,841명)으로 외지인 유입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사이에 제주도 인구가 70,482명(한국인 59,845명, 외국인 10,637명)이 늘어나 전체 인구의 9% 가까이 증가하였다.

9) 필자는 2013년부터 제주로 이주한 귀농 귀촌 인구를 대상으로 제주방언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현재 13기까지 귀농귀촌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제주도 방언이 표준

부정적인 요인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 요소인 ‘무뚝뚝하다’·‘촌스럽다’·‘듣기 싫다’는 타도 출신보다 제주도 출신이 더 부정적이었다. ‘무뚝뚝하다’는 제주도 출신이 52.2%, 타도 출신 50.0%, ‘촌스럽다’는 제주도 출신 26.8%, 타도 출신 19.2%, ‘듣기 싫다’는 제주도 출신 8.7%, 타도 출신 3.8%로 나타났다. 반면 ‘간사하다’는 제주도 출신(6.7%)보다 타도 출신(7.7%)이 좀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3.1.4. 방언 태도 추이

방언의 태도 변화는 사회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큰 변화가 있었음을 2017년의 연구 결과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이정민(1981)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40-50대(당시 20대 이하)가 2017년 조사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이는 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언어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셈이다.

즉, 20대에는 표준어 정책 등의 사회적 변인으로 인하여 방언 태도가 부정적이었다고 한다면, 2017년에는 언어 정책과 사회 변화를 이끄는 주도 세력으로서 성장한 40-50대가 사회적 관심사에 따라서 방언 태도도 크게 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정민(1981:574)에서는 제주도 방언 태도가 상당히 부정적이었는데 2017년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이는 제주도 방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주도 방언을 보전해야 한다는 기대감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표 5>와 <표 6>을 비교해 보면, 제주도 방언에 대한 타도 출신들의 긍정적인 태도가 크게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정민(1981)에서는 긍정적인 태도인 ‘배움직하다’가 10% 미만¹⁰⁾이라고 응답한 반

어와 다른 지역 방언들과 달리 특이한 점에 주목하고, 실제로 상품명이나 상호 등으로 제주도 방언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10) 1981년에는 경상도 사람들이 41명 중 1명(2.4%), 전라도 사람이 41명 중 2명(4.7%), 충청도 사람이 40명 중 2명(5.0%), 강원도 사람이 38명 중 2명(5.2%), 경기도 사람이 63명 중 5명(7.9%)이 ‘배움직하다’고 응답하였다.

면에 2017년에는 80.8%라고 응답하여 태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표 6> 타 방언에 대한 태도¹¹⁾ (단위: 명)

대상도 방언형	대상자수	경상	전라	제주	충청	강원	경기
		41	41	40	40	38	63
경상	씩씩하다		3	8	13	3	17
	무뚝뚝하다		14	6	2	2	17
	듣기 싫다		14	3	12	7	8
전라	상냥하다	2		2	2	5	7
	간사하다	17		13	16	6	21
	듣기 싫다	18		20	10	8	22
제주	배움직하다	1	2		2	2	5
	촌스럽다	9	10		4	6	10
	듣기 싫다	13	9		5	11	16
충청	점잖다	14	7	9		5	15
	촌스럽다	5	11	7		8	24
	듣기 싫다	9	9	7		5	7
표준말	듣기 좋다	34	26	30	28	31	
	간사하다	7	5	8	0	1	
	상냥하다	30	19	23	11	11	

이는 사회 환경 등의 요인이 언어 태도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배움직하다’는 응답이 10% 이내일 때는 정부의 표준어 정책에 따라 표준어 사용을 권장할 때여서 방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방언 태도에 투영된 결과로 보인다. 반면에 2017년은 제주도 방언 보전이 제주도정의 핵심 정책인데다 언어의 다양성이 중시되고 방언을 우리말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 등이 방언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꿔게 한 요인이다. 김덕호의 다음의 연구 결과는 이런 태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방언 화자들의 방언사용에 대하여 긍정적이라는 견해(①,②¹²⁾)가 2005

11) <표 6>은 이정민(1981:574)의 ‘표 3. 타 방언에 대한 태도’ 가운데 비울과 서울 지역을 제외하여 필자가 다시 작성해 보인 것이다.

12) ①은 ‘매우 긍정적인 생각’, ②는 ‘대체로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의미다.

년에 26.3%에서 2010년 63.0%로 높아졌고, 2014년에는 75.0%로 높아지게 된다. 이에 대한 원인을 국립국어원(2010:73)에서는 당시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표준어뿐만 아니라 방언도 우리말의 일부로 인정하는 태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2014년의 조사에서 더욱 높아진 결과로 보아 다양성을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 이제는 문화적 가치를 담은 의사소통의 도구임을 점차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로 분석할 수 있다.”(김덕호, 2014:14)

게다가 이런 태도 변화는 제주로 이주해 온 타도 출신들이 제주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방언의 높은 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도 한몫을 하였다. 방언은 곧 소통의 대상이며, 버려야 할 낡은 유물이 아니라 지켜야 할 문화적 가치가 담긴 언어 유산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이 언어 태도까지 바꿔 놓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정적인 인식은 비슷하거나 낮아졌다. ‘촌스럽다’는 2017년 타도 출신이 19.2%로 1981년(경상 21.9%, 전라 24.3%, 충청 10.0%, 강원 15.7%, 경기 15.8%)과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듣기 싫다’는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1981년(경상 31.7%, 전라 21.9%, 충청 12.5%, 강원 28.9%, 경기 25.3%)에는 지역에 따라 12.5%에서 31.7%로 ‘듣기 싫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2017년에는 3.8%만이 ‘듣기 싫다’는 태도를 보였다.

<표 7> 타 방언에 대한 남녀 태도 (단위: %)

항 목	2017		2013		1981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믿음직하다	70.0	72.3	32	45	25	20
듣기 좋다	81.0	84.7	64	70	55	20
씩씩하다	77.7	85.7	73	90	20	10
점잖다	50.0	53.8				10
배움직하다	69.8	73.9	77	90	10	
부럽다	47.9	44.9	23	35		
촌스럽다	25.0	26.9	23	15	15	
무뚝뚝하다	44.8	58.8	23	60	55	65
간사하다	5.2	8.4		10		
듣기 싫다	8.7	7.6				15

남녀의 방언 태도도 달라졌다. <표 7>에서 보듯이, 이정민(1981)과 강범모(2005)¹³⁾, 강영봉(2013)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방언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보편적인 태도가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 바뀌고 있다.¹⁴⁾

제주도 방언의 긍정적인 태도 가운데 ‘믿음직하다’는 1981년 남자 25%·여자 20%였다면 2013년에는 남자 32%·여자 45%, 2017년에는 남자 70%·여자 72.3%로 긍정적인 평가가 더욱 높아졌다. 1981년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긍정적이었다면 2013년 이후에는 여자가 더욱 ‘믿음직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듣기 좋다’는 ‘믿음직하다’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1981년 남자 55%·여자 20%에서 2013년에는 남자 64%·여자 70%, 2017년 남자 81%·여자 84.7%로 나타났다.

‘씩씩하다’는 반응도 1981년 남자 20%·여자 10%에서 2013년 남자 73%·여자 90%, 2017년 남자 77.7%·여자 85.7%로 방언에 대한 태도는 갈수록 여자가 남자보다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배움직하다’는 1981년 남자 10%, 여자 0%에서 2013년 남자 7%·여자 90%, 2017년 남자 69.8%·여자 73.9%으로 나타났다. 이런 태도 변화는 제주도 방언을 보전하려는 노력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언어 태도의 주요 변인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표준어 정

13) 강범모(2005)는 “과거에 표준어 이외의 방언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자기 방언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타났었다. 현재의 조사 결과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약화된 것을 보인다. 자기 방언에 대해 여전히 여자가 남자보다 더 부정적임을 보이는 태도들로 영남방언의 ‘믿음직하다, 무뚝뚝하다, 점잖다’, 호남방언의 ‘믿음직하다, 씩씩하다, 간사하다, (정경다, 귀엽다)’, 충청방언의 ‘점잖다, 씩씩하다(답답하다)’ 등이 있다. 그러나 나머지 태도에 대해서는 남녀 차이가 별로 없거나(10%), 오히려 여자가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14) 강영봉(2013)은 “1980년대와 비교할 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는 높아진 반면 부정적인 태도는 조금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여학생들이 긍정적인 태도에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눈에 띈다. 이는 강범모(2005:697)의 다른 지역 조사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이와 같은 태도 변화는 유네스코가 2010년 제주어를 소멸 위기의 언어로 지정한 결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제주어 보전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를 보전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제주어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2013:47)이라고 분석했다.

책을 강화하던 시기인 1981년도의 방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대조를 보이는 것은 이런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부정적인 태도인 ‘무뚝뚝하다’는 1981년 남자 55%·여자 65%, 2013년 남자 23%·여자 60%, 2017년 남자 44.8%·여자 58.8%로 여자가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무뚝뚝하다’는 1981년·2013년·2017년 비슷하게 응답하여 제주도 방언이 ‘무뚝뚝하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반면 주관식 질문에 따른 응답을 보면, ‘귀엽다’, ‘정감 있다’ ‘친근하다’, ‘푸근하다’, ‘토속적이다’는 등의 긍정적인 태도와 함께 ‘강하다’, ‘공격적이다’, ‘투박하다’, ‘싸우는 것 같다’, ‘억세다’ 등의 부정적인 요소 등도 다양하게 나타나 향후 방언 태도를 조사할 때는 태도 요인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 8>은 주관식 문항에 따른 성별·세대별에 따른 제주도 방언의 태도 요소다.

<표 8> 주관적 질문에 따른 방언 태도 요소

세대	성별	방언 태도 요소	
20-30대	남	긍정	예를 중시하는 느낌이다. 사람 냄새 난다. 가치 있다. 정감 있다. 그렇다. 중세국어 느낌이 난다. 토속적이다. 표준어와 같은 언어다.
		부정	거칠다. 배울 생각 없다. 말이 빠르다.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다. 어렵다. 강하다.
	여	긍정	간결하다. 귀엽다. 사랑스럽다. 자연적이다. 재밌다. 정감이 간다. 정겹다. 친근하다. 효율적이다.
		부정	강하다. 공격적이다. 생소하다. 소리가 크다. 예의 없어 보인다. 투박하다. 화내는 것 같다.
40-50대	남	긍정	간략하다. 고향 같다. 구수하다. 다정하다. 동질감. 생략이 많다. 서정적이다. 소박하다. 인간미가 있다. 재미있다. 정겹다. 친근하다. 토속적이다. 편하다. 향토적이다.
		부정	거칠다.
	여	긍정	감정이 실려 있다. 넉넉하다. 느긋하다. 따뜻하다. 좋다. 간결하여 합리적이다. 친근하고 편하다. 보존해야 한다. 친근하

			다. 정감이 있다. 정답다. 표준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 많다. 섬세하다. 푸근하다.
		부정	억세다. 공격적이다. 촌스럽다. 싸우는 것 같다. 야단치는 느낌이 있다.
60-70대	남	긍정	가치 있다. 독특하다. 신기하다. 애함심이 느껴진다. 다양하다. 자랑스럽다. 정겹다. 친근하다. 토속적이다.
		부정	부드럽지 못하다. 어렵다. 통명스럽다.
	여	긍정	자랑스럽다. 정감 있다. 푸근하다. 느낌이 다르다. 사라질까 걱정된다. 듬직하다. 친근하다. 기분이 좋다. 어머니 품에 안긴 느낌이다. 표현력이 증강된다. बे지근하다.
		부정	거칠다. 무뚝뚝하고 촌스럽다. 급하다.
80대 이상	남	긍정	만족스럽다. 공손하다. 다정하다. 좋다. 보전해야 한다. 고향말이라 무시할 수 없다.
		부정	빠르다. 모르겠다. 싸우는 말 같다. 욕하는 것 같다.
	여	긍정	재미있다. 좋다. 자랑스럽다. 옛날 생각이 난다. 편하다. 즐겁다. 정감 있다.
		부정	축축하다. 사납다.

3.2. 표준어와 방언 비교

3.2.1. 표준어와 방언의 태도 비교

제주도민들은 ‘표준어와 방언 가운데 어느 것이 좋은가’라는 인식 조사에서 표준어보다 제주도 방언이 더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 평가는 ‘표준어가 매우 좋다’, ‘표준어가 그저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제주도 방언이 매우 좋다’, ‘제주도 방언이 그저 그렇다’는 다섯 가지 항목에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표준어가 매우 좋다’는 응답은 11.5%, ‘제주도 방언이 매우 좋다’는 응답은 33.8%로, 제주도 방언이 표준어보다 배 이상 좋다는 태도를 보였다. 성별로 보면, ‘표준어가 매우 좋다’는 응답은 남자 12.8% · 여자 10.3%로 남자가 여자보다 표준어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제주도 방언이 좋다’는 응답 비율은 남자 32.5% · 여자 35.9%로 여자가 높았다. 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좀더 표준어를 선호한

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어 놓는 결과여서 주목된다.

세대별로 보면, ‘표준어가 매우 좋다’는 반응은 20-30대는 전혀 없었고, 40-50대 10.0%, 60-70대 15.3%, 80대 이상 21.1%로 연령이 높을수록 표준어가 좋다는 태도를 보였다. 20-30대에서 ‘표준어가 매우 좋다’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들 세대에서는 표준어와 함께 ‘지역 사회’ 알기 교육도 이루어지면서 방언의 중요성도 부각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주어가 매우 좋다’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다. 20-30대 19.0%, 40-50대 28.3%, 60-70대 39.0%, 80대 이상 49.1%로 나타났다.

출신지별로 보면, ‘표준어가 매우 좋다’는 응답은 제주도 출신(10.6%)이 타도 출신(19.2%)보다 낮았다. 반면 ‘제주도 방언이 매우 좋다’는 응답은 제주도 출신 36.1%, 타도 출신 15.4%로 자기 방언을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전의 조사 결과와 같게 나타났다.

<표 9>는 세대에 따른 표준어와 제주도 방언의 선호도 조사 결과다.

<표 9> 세대에 따른 표준어와 제주도 방언의 선호도 (단위: %)

항 목	세대별	표준어가	표준어가	잘 모르겠다	제주어가	제주어가
		매우 좋다	그저 그렇다		매우 좋다	그저 그렇다
제주도 방언과 표준어를 비교하면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20~30대	-	24.1	43.1	19.0	13.8
	40~50대	10.0	23.3	25.0	28.3	13.3
	60~70대	15.3	23.7	8.5	39.0	13.6
	80대 이상	21.1	12.3	8.8	49.1	8.8

3.2.2. 제주도 방언을 좋아하는 이유

‘제주도 방언을 좋아하는 이유’는 ‘3.1. 방언 태도’를 묻는 요소 가운데 긍정적인 요소인 ‘믿음직해서’, ‘듣기 좋아서’, ‘씩씩해서’, ‘점잖

아서’, ‘배워 두면 좋을 같아서’ 등 5가지 항목에서 순위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제주도 방언을 좋아하는 이유’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1순위 응답률은 ‘듣기 좋아서’(28.7%), ‘배워 두면 좋을 것 같아서’(19.2%), ‘믿음직해서’(18.8%), ‘씩씩해서’(14.2%), ‘점잖아서’(2.1%)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1순위로 응답한 이유는 ‘듣기 좋아서’ 64.1%,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서’ 40.5%, ‘믿음직해서’ 36.2%, ‘점잖아서’ 2.0%의 비율로 나타났다. 여자는 ‘씩씩해서’ 33.3%, ‘듣기 좋아서’ 26.1%, ‘믿음직해서’ 26.1%,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서’ 24.2%, ‘점잖아서’ 6.5%였다. 즉 ‘제주도 방언을 좋아하는 이유’로 남자는 ‘듣기 좋아서’(64.1%)인데 반해 여자는 ‘씩씩해서’(33.3%)를 꼽아 차이를 보였다.

세대별로 보면, 조사 항목 중 1순위 중 가장 비율이 높은 항목은 20-30대 ‘듣기 좋아서’(51.3%), 40-50대 ‘듣기 좋아서’(46.3%), 60-70대 ‘믿음직해서’(46.3%), 80대 이상 ‘듣기 좋아서’(50.0%)였다. ‘믿음직해서’라고 응답한 60-70대에서 ‘듣기 좋아서’를 1순위로 응답한 비율은 37.8%로 나타났다. 항목에 따른 세대별 1순위 비율을 보이면 <표 10>과 같다.

<표 10> 항목에 따른 세대별 1순위 비율 (단위: %)

항목		믿음직해서	듣기 좋아서	씩씩해서	점잖아서	배워두면 좋아서
세 대 별	20-30대	16.7	51.3	43.2	6.7	24.2
	40-50대	16.3	46.3	41.2	6.5	22.2
	60-70대	46.3	37.8	9.7	3.3	37.5
	80대 이상	43.3	50.0	4.8	-	48.4

‘제주도 방언을 좋아하는 이유’를 항목별로 보이면, ‘믿음직하다’가 60-70대 46.3%, 80대 이상 43.3%라고 응답하였다. ‘씩씩하다’는 20-30

대 43.2%, 40-50대 41.2%로 높게 나타났다.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서’는 80대 이상에서 48.4%가 1순위로 응답하였다. 반면 20-30대 24.2%, 40-50대 22.2%, 60-70대 37.5%의 비율로 1순위라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다.

출신지별로는, 제주 출신들이 가장 높은 비율로 1순위를 차지한 항목은 ‘듣기 좋아서’로 48.9%, 타도 출신들은 41.2%가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하였다.

3.2.3. 자녀들의 제주도 방언 배우기

‘자녀들이 제주도 방언을 배우기 희망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가운데 74.9%가 배우기를 희망하였다. ‘배우기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2%에 불과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69.8%)보다 여자(79.8%)가 ‘배우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고, 세대별로는 20-30대 75.9%, 40-50대 75.4%, 60-70대 80%, 80대 이상 67.9%로 전세대에서 자녀들이 제주도 방언을 배우기를 희망하였다. 출신지별로는 제주도 출신 76.1%, 타도 출신 65.4%가 희망하였다.

‘자녀들이 제주도 방언을 배우기를 희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서’가 47.9%로 가장 높았고, 배우는 방법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47.1%가 ‘가족이나 친지를 통해서’였다. 다음은 교육 기관 17.5%, 언론 매체 11.3%, 예술 작품 5.8%, 교재 5.0% 순으로 1순위를 차지하였다.

3.2.4. 제주도 방언이 제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제주 사회에서 생활할 때 제주도 방언이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82.9%가 매우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 85.1%, 여자 81.4%가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여 여자보다 남자가 더 방언 사용이 제주 생활에 영향을 받는

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출신지별로는 제주도 출신 83.5% · 타도 출신 80.8%가 제주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방언 사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방언 사용이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언어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소통인데, 지역에서 생활할 때 방언은 반드시 필요한 매개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0명 중 8명이 타지에서 생활할 때 방언이 영향을 준다는 태도를 보인 것은 방언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고리이자 유대감 형성에 도움을 주는 소통 수단이기 때문이다.

4. 평가와 제언

제주도 방언에 대한 태도 추이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회 환경 등 사회적 변인이 방언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개연성을 확인했다는 사실이다. 즉 1981년, 2013년, 2017년의 조사 결과는 언어 정책 등 환경의 변화가 방언에 대한 태도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꾸고 방언에 대한 남녀의 태도도 바뀌 놓았다.

1981년의 표준어 강화 정책은 표준어보다 방언 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고, 2010년 제주도 방언이 유네스코의 소멸 위기의 언어로 분류된 이후에 나타난 제주도 방언의 보전 정책은 2013년, 2017년대의 방언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뀌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태도의 변화는 언어 정책의 변화도 한몫했지만 교육 기회와 사회 활동 등에서 남녀가 대등한 사회 분위기가 여성들의 언어 태도를 바꿔 놓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정민의 조사 시기인 1981년은 학교 현장 등에서 표준어 교육을 강화하는 대신에 방언 사용을 억제시켰다. 필자 역시 ‘고운 말을 쓰자’라는 리본을 달면서 방언보다 표준어 쓰기를 강요받았다. 이런 교육 정책은 방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였다. 즉 표준어는

서울 사람들이 교양 있게 쓰는 말이고, 방언은 시골 사람들이 쓰는 세련되지 못한 말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갖게 했다. 이런 영향은 곧 방언 사용자를 줄어뜨리게 하면서 제주도 방언을 점차 소멸 위기로 몰아넣은 것이다.

텔레비전 보급과 고등 교육의 보편화, 공공 생활 속에서의 표준어 사용을 강화하는 사회적 편견도 방언 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

더욱이 제주도 방언은 다른 지역과 유다른 점이 많아 어렵다는 인식을 굳혔고, 표준어는 세련되고 방언은 촌스럽다는 사회적 편견은 타도로 유학했던 제주출신 대학생들에게 자발적으로 자기 방언 대신에 표준어를 사용하도록 이끌었다.

그러나 제주도 방언이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는 위기의식은 제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로 하여금 제주도 방언 보전의 약방문을 처방하고, 2007년에는 급기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로 하여금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를 만들게 하였다. 2010년에 유네스코에서 제주도 방언을 소멸 위기의 언어 4단계인 ‘아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critically endangered language)’로 분류하면서 학계, 행정과 교육 당국, 신문과 방송, 문화예술계 등에서 제주도 방언을 지키려는 노력들을 벌이게 된다. 이런 노력들은 이정민(1981)에서 보였던 제주도 방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강영봉(2013)에 이어 본 연구에서 긍정적으로 끌어올리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또한 여자들의 언어 태도도 확연히 바뀌어놓았다. 즉, 과거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방언에 더 부정적인 반면 표준어에는 더 지향적이라는 학설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방언에 더 긍정적이고, 남자가 표준어에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어 정반대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언어 정책 등의 사회 분위기도 한몫했지만 본질적으로는 교육 기회와 사회 활동 측면에서 남자와 여자가 대등한 사회 환경이 언어 태도를 바꾸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출신 지역 방언에 대해 ‘믿음직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남자가 자기 지역 방언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데 반해, 여자가 훨씬 더 부정적인 특징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여자가 남자보다 지위(status)와 위신(prestige)에 민감하다는 일반적인 경향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이는 외국 사회의 조사 결과와도 통하는 현상이다. 표준말의 위신에 자신의 지역 방언을 견주는 심리가 여자 쪽이 더 작용하는 것이며, 반면에 남자는 여자보다 더 자기 지역 방언에 대해 ‘은연 중의 위신’(covert prestige)을 느낀다는 설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여자에 비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이정민, 1981:572-573)라는 태도는 사회적 변인에 따라 흔들리고 있다.

강범모(2004)는 제주도 방언의 태도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방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고, 강영봉(2013)은 “1980년대와 비교할 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는 높아진 반면 부정적인 태도는 조금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여학생들이 긍정적인 태도에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강범모(2005:697)의 다른 지역 조사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런 태도 변화는 유네스코가 2010년 제주어를 소멸 위기의 언어로 지정한 결과로 평가하였다. 즉, 방언에 대한 태도는 사회적인 요인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1981년 · 2013년 · 2017년의 언어 태도의 추이를 통하여 확인된 셈이다.

따라서 방언 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언어 정책과 사회 분위기 등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방언 보전을 위해서는 방언 정책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소멸 위기의 제주도 방언을 살리기 위한 방언 정책 방향을 몇 가지 제언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방언은 지역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농축된 언어다. 따라서 방언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나 방언 사용자들이 방언은 보전 가치가 높은 언어 유산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¹⁵⁾

둘째, 제주도 방언의 전승을 위해서는 방언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방언 교육은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유아기에서부터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재 개발이나 교육 과정 개발, 교사 양성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제주도 방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문학 작품, 예술 작품, 상품명과 상호 등 활용도를 다각적으로 높여야 한다.

넷째, 제주도 방언과 제주 향토 문화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방언의 자료 수집과 구축이 필요하다. 제주도 방언 자료 수집과 구축은 향후 제주도 방언 연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다섯째, 제주도 방언의 확산과 대중화를 위해서는 정보화 사회를 살고 있는 세대들을 위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즉 제주도 방언 자료를 정보화하는 한편 정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방송과 언론 매체, 포털 사이트와 누리소통망(SNS) 등을 활용한 제주도 방언 홍보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활동 등이 활성화될 때 방언 태도도 보다 더 긍정적으로 바뀌고, 방언 보전과 부흥도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믿는다. 방언 태도는 사회적인 변인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15) 김덕호(2014:20)의 결과에 따르면, “제주권에서 방언 존속에 대한 의견이 2005년에 93.4%가 나왔고, 2010년 94.3%, 2014년에는 99.9%로 조사되었다. 이런 결과는 제주에서 제주도 방언의 보전 정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5. 결론

이 글은 제주도 방언의 방언 태도 추이를 이정민(1981), 강영봉(2013)과 2017년 연구자의 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살피는 한편 표준어와 제주도 방언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인식 태도를 사회언어학적으로 고찰하였다.

논의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다루었고, 2장에서는 선행 연구와 연구 방법을 소개하였다. 연구는 1981년과 2013년의 설문 내용을 토대로 설문 문항을 작성하여 20-30대, 40-50대, 60-70대, 80대 이상 등 240명을 대상으로 언어 태도 10가지 요소와 표준어와 방언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하였다.

3장은 제주도민들의 방언 태도와 추이 변화를 살폈다. 2017년 방언 태도는 성별·세대별·출신지별로 방언 태도를 살핀 후에 방언 추이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논의 결과, 방언에 대한 태도는 남자보다 여자가 좀 더 긍정적이었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요소는 남자가 ‘듣기 좋다’(81.0%)·‘씩씩하다’(77.7%)·‘믿음직하다’(70.0%)·‘배움직하다’(69.8%)·‘점잖다’(50.0%) 순이었고, 여자는 ‘씩씩하다’(85.7%)·‘듣기 좋다’(84.7%)·‘배움직하다’(73.9%)·‘믿음직하다’(73.9%)·‘점잖다’(53.8%) 순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보면, 세대가 높을수록 좀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40-50대가 보수층인 60-70대보다 방언에 대하여 좀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출신지 별로 보면, 자기 출신 지역 방언에 대하여 타 지역 사람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이한 점은, 제주 거주 타도 출신들이 제주 출신보다 10% 이상 제주도 방언을 더 ‘배움직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2010년 이후 제주로 이주한 타지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살면서 방언을 알아야 한다는 강한

육구와 함께 제주도 방언의 특이함과 보전 운동이 영향을 끼친 결과로 보았다.

유네스코에서 제주도 방언을 소멸 위기의 언어로 분류한 이후에 제주도 방언을 보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방언 태도도 바뀌어 놓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이정민(1981)에서는 긍정적인 태도 가운데 ‘믿음직하다’가 남자 25%·여자 20%였다면, 강영봉(2013)에서는 남자 32%·여자 45%, 2017년에는 남자 70%·여자 72.3%로 긍정적인 평가가 더욱 높아졌다.

표준어와 방언의 태도에서도 변화를 보였다. 조사 결과, ‘표준어가 매우 좋다’는 응답은 11.5%, ‘제주도 방언이 매우 좋다’는 33.8%로, 제주도 방언이 표준어보다 좋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또 ‘표준어가 매우 좋다’는 반응은 남자 12.8%·여자 10.3%로 남자가 여자보다 표준어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 기존의 학설을 뒤집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자녀들이 제주도 방언을 배우기를 희망하는가’라는 질문에서 74.9%가 배우기를 희망하였고, ‘제주 사회에서 생활할 때 제주도 방언이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82.9%가 매우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였다.

4장은 ‘평가와 제언’으로, 제주도 방언에 대한 태도 추이 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변인이 방언 태도를 바꿀 수 있음을 세 연구를 토대로 규명하였다. 1981년에 방언 태도가 부정적인 요인은 당시 언어 정책이 표준어를 강화하던 시기였고, 2013년과 2017년에 방언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뀐 것은 사회 분위기와 언어 정책이 소멸 위기의 제주도 방언을 지키려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멸 위기의 제주도 방언을 전승하기 위해서는 방언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세워야 하는지가 중요하고, 방언에 대한 인식 전환, 방언 교육, 방언 활용의 다각화, 방언의 대중화와 정보화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참고문헌

- 강범모. 2004. “한국인의 방언에 대한 태도의 추이: 예비적 조사 결과.” 『한국언어학회 2004 여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언어학회). 131-142.
- 강범모. 2005. “한국인의 방언에 대한 태도의 추이: 1980년대와 2000년대.” 『이정민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서울: 한국문화사. 451-477.
- 강영봉. 2013. “제주사회 통합과 제주어.” 『탐라문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43. 39-65.
- 강정희. 2004. “재일 한국인의 한국어에 대한 언어 선택 태도 조사.” 『어문학』 (한국어문학회) 86. 1-29.
- 강현석. 2010. “충남 지역 화자들의 방언 구획, 방언 태도 및 인지에 대한 연구.” 『사회언어학』 (한국사회언어학회) 18(2). 249-286.
- 국립국어원. 2005. 『2005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서울: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 2010. 『2010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서울: 국립국어원.
- 김덕호. 2014. “한국인의 방언 태도에 대한 추이 연구.” 『어문학』 (한국어문학회) 126. 1-36.
- 문순덕. 2015. 『제주말 소멸위기 실증적 진단과 대응 방안 연구』 제주: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박경래. 2002. “중국 연변 조선족들의 언어 태도.” 『사회언어학』 (한국사회언어학회) 10(2). 59-85.
- 오성애. 2011. “중국 청도 거주 조선족의 언어 태도와 사용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성애. 2010. “중국 연변 조선족들의 언어 태도.” 『사회언어학』 (한국사회언어학회) 10(2). 59-85.
- 이정민. 1981. “한국어의 표준어 및 방언들 사이의 상호 접촉과 태도.” 『한글』 (한글학회) 173 · 174. 559-584.

김순자 (Kim, Soonja)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6319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51, 3층
전화: 064-726-9154
전자우편: sj4765@hanmail.net

원고접수일: 2019. 06. 23.
심사완료일: 2019. 07. 19.
게재결정일: 2019. 07. 25.

<부록 1> 언어 태도 조사 질문지16)

2-1. 제주도 방언을 들으면 ‘믿음직하다’는 느낌이 듭니까?

- ①매우 믿음직하다는 느낌이 든다. ()
- ②그저 믿음직하다는 느낌이 든다. ()
- ③잘 모르겠다. ()
- ④그저 믿음직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
- ⑤전혀 믿음직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

2-2. 제주도 방언을 들으면 ‘듣기 좋다’는 느낌이 듭니까?

- ①매우 듣기 좋다는 느낌이 든다. ()
- ②그저 듣기 좋다는 느낌이 든다. ()
- ③잘 모르겠다. ()
- ④그저 듣기 좋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
- ⑤전혀 듣기 좋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

2-3. 제주도 방언을 들으면 ‘씩씩하다’는 느낌이 듭니까?

- ①매우 썩썩하다는 느낌이 든다. ()
- ②그저 썩썩하다는 느낌이 든다. ()
- ③잘 모르겠다. ()
- ④그저 썩썩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
- ⑤전혀 썩썩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

2-4. 제주도 방언을 들으면 ‘점잖다’는 느낌이 듭니까?

- ①매우 점잖다는 느낌이 든다. ()
- ②그저 점잖다는 느낌이 든다. ()
- ③잘 모르겠다. ()
- ④그저 점잖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
- ⑤전혀 점잖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

16) 설문 문항 가운데 일반 사항(1-1, 1-2, ...)은 지면 관계상 생략하였기에, ‘언어 태도’ 조사 문항이 ‘2-1’로 시작되었다.

2-5. 제주도 방언을 들으면 ‘배우고 싶다’는 느낌이 듭니까?

- ① 매우 배우고 싶다는 느낌이 든다. ()
- ② 그저 배우고 싶다는 느낌이 든다. ()
- ③ 잘 모르겠다. ()
- ④ 그저 배우고 싶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
- ⑤ 전혀 배우고 싶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

2-6. 제주도 방언을 들으면 ‘부럽다’는 느낌이 듭니까?

- ① 매우 부럽다는 느낌이 든다. ()
- ② 그저 부럽다는 느낌이 든다. ()
- ③ 잘 모르겠다. ()
- ④ 그저 부럽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
- ⑤ 전혀 부럽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

2-7. 제주도 방언을 들으면 ‘촌스럽다’는 느낌이 듭니까?

- ① 매우 촌스럽다는 느낌이 든다. ()
- ② 그저 촌스럽다는 느낌이 든다. ()
- ③ 잘 모르겠다. ()
- ④ 그저 촌스럽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
- ⑤ 전혀 촌스럽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

2-8. 제주도 방언을 들으면 ‘무뚝뚝하다’는 느낌이 듭니까?

- ① 매우 무뚝뚝하다는 느낌이 든다. ()
- ② 그저 무뚝뚝하다는 느낌이 든다. ()
- ③ 잘 모르겠다. ()
- ④ 그저 무뚝뚝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
- ⑤ 전혀 무뚝뚝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

2-9. 제주도 방언을 들으면 ‘간사하다’는 느낌이 듭니까?

- ① 매우 간사하다는 느낌이 든다. ()
- ② 그저 간사하다는 느낌이 든다. ()

- ③ 잘 모르겠다. ()
- ④ 그저 간사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
- ⑤ 전혀 간사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

2-10. 제주도 방언을 들으면 ‘듣기 싫다’는 느낌이 듭니까?

- ① 매우 듣기 싫다는 느낌이 든다. ()
- ② 그저 듣기 싫다는 느낌이 든다. ()
- ③ 잘 모르겠다. ()
- ④ 그저 듣기 싫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
- ⑤ 전혀 듣기 싫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

2-11. 위의 10가지 이외의 느낌이 든다면 다음 괄호 안에 직접 써 주시고, 그 이유도 간단하게 적어 주십시오. 복수 응답도 가능합니다.
()

2-12. 제주도 방언과 표준어를 비교하면 어느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표준어가 매우 좋다. ()
- ② 표준어가 그저 그렇다. ()
- ③ 잘 모르겠다. ()
- ④ 제주도 방언이 매우 좋다. ()
- ⑤ 제주도 방언이 그저 그렇다. ()

2-13. 제주도 방언이 좋다면 왜 좋습니까?(좋은 차례대로 번호를 매겨 주십시오.)

- ① 믿음직해서. ()
- ② 듣기 좋아서. ()
- ③ 씩씩해서. ()
- ④ 점잖아서. ()
- ⑤ 배워 두면 좋을 것 같아서. ()

2-14. 자녀들이 제주도 방언 배우기를 희망합니까?

- ① 배우기를 아주 희망한다. ()

- ② 배우기를 희망한다. ()
- ③ 잘 모르겠다. ()
- ④ 배우기를 희망하지 않는다. ()
- ⑤ 배우기를 매우 희망하지 않는다. ()

2-15. 자녀들이 제주도 방언 배우기를 희망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기타 응답은 그 이유를 직접 적어 주십시오.

- ① 믿음직해서. ()
- ② 듣기 좋아서. ()
- ③ 씩씩해서. ()
- ④ 점잖아서. ()
- ⑤ 배워 두면 좋을 것 같아서. ()
- ⑥ 기타()

2-16. 제주도 방언을 배운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배우고 싶습니까? 방법을 차례대로 번호를 매겨주십시오. 기타 응답은 그 이유를 직접 적어 주십시오.

- ① 가족이나 친지를 통해서. ()
- ② TV나 라디오, 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해서. ()
- ③ 교육 기관을 통하여. ()
- ④ 교재를 통하여. ()
- ⑤ 영화, 문학 등 예술 작품을 통하여. ()
- ⑥ 기타. ()

2-17. 제주사회에서 생활할 때 제주도 방언 사용이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 ② 그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그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⑤ 매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